◉ 성령 강림 대축일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꼭꼭 숨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명 자신들 차례라고 여겼습니다.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뵈었다는 얘길 듣긴 했지만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들이닥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엊그제 장사 지낸 분이 막달레나 말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 서셨습니다. 돌무덤을 열고 나오셨듯이 닫힌 문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현존하십니다. 인간의 차원을 극복하고 뛰어넘으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어디에나 두루 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닫힌 문을 여셨듯이 닫힌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예수님 몸소 문 밖에서 문을 뚫고, 죽음 저편에서 죽음을 건너 이리로 오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고별 만찬 때도 평화를 이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평화는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뚫고 성취한, 부활과 승리의 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모든 갈등을 풀어갈 것입니다.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몸을 지니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고생을 다 겪으신 바로 그 몸, 그분이십니다. 부활은 희뿌연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세상의 갈등과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뵈었습니다. 공포의 분위기가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들뜬 분위기에 젖어 있지 않으시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당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한테서 파견되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온전한 순종과 사랑으로 완수하셨습니다. 아버지께 파견되셨듯이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무력한 그들이 그냥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라."이미 최후 만찬 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진리의 영이신 분이 제자들의 보호자로 나서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성령을 통해 제자들은 새 생명을 얻어 새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분께 직접 파견되었으니 제자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용서는 하느님께 속한 것이었으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권한도 제자들에게 함께 주어 보내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활동 전체를 '용서'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결실은 용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받는 일과 연결됩니다.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도 화해와 참회·용서가 필요하고, 그래야 성령을 받아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제자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자들은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매고 푸는 엄청난 권한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집니다. 선물인 동시에 소명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이 제자들의 소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일이 제자들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성령을 받은 이라면 용서를 실천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공동체라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공동체는 평화를 잃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령을 이어주는 마지막 소명을 완수하십니다. 전에도 몇 번이고 예고하셨던 성령, 그분을 당신 온몸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살아 있는 숨으로 오신 성령은 풀 죽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먼 길 떠나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제자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받습니다.

-야곱의 우물-

자주 전화하세요.

우리는 쉼 없이 누군가와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속에 혹시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가 소통에 목말라 있듯, 부모님은
자식들과의 소통에 목말라 하십니다.
자주 전화하세요.
할 말이 없으면 가끔은 "오복순 씨!" 하고
어머니 이름을 장난스레 불러보세요.
"나 오복순 아닌데요." 하며 장난을 받아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수화기 너머 저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명 행복이 묻어 있을 겁니다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뇌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성모 성월 기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한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의 큰 힘을 떨쳐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조상들에게 언약하신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어머니날행사 안내

오늘 미사후 라이프센타 친교실에서 사목위원들이 준비한 간단한 행사가 있겠습니다.

◉온타리오 5개 본당 친선 골프대회를 해밀톤 본당이 주최합니다. 공소 교우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 6월 17일 오후 1시 Shotgun
장소 : Highland Golf Club
참가비 : $70(식사 및 기념품 포함)
문의 : 윤명원 행사부장 (h) 519-623-2884

◉교육관 개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손수 수고해주신 공소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관리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전 교우들이 우리 집 가꾸듯이 살뜰이 돌봐야 하겠습니다. 오픈하우스는 일시는 차후에 공소 인터넷 클럽과 주보에 공지하겠습니다.

◉울뜨레야 모임 안내

오늘 미사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5월 구역모임안내

▶1구역: 24일(토) 저녁 7시 김현덕 형제집
▶2구역: 31일(토) 저녁 6시 교육관
▶4구역: 23일(금) 저녁 7시 안세영 형제집
▶5구역: 24일(토) 저녁 6시 정동근 형제집
▶6구역: 24일(토) 저녁 7시 이동기 형제집

◉ 바뇌 기도회안내

5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장명길 형제집

◉ 관리부에서 일립니다.

▶**교육관 사용이** 필요한 부서및 단체는 관리부에 2주전에 예약하시고 교육관 열쇠는 사용 당일 관리부에 오셔서 사용대장에 서명, 인수하시고 반납은 다음 주일 날 성당에서 관리부에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 후에 정리 정돈 소등, 그리고 문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이용할 단체는 사전 예약바랍니다 ***

▶교육관에 필요한 비품과 현금을 기부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1차 마감을 5월 31일로 하오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바랍니다. 공소 인터넷 클럽 또는 관리부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이명희 관리부장
(B)519 894 3533 / H) 896 9628/ C) 228 338 0679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주간 전례

▶5 월 13일(화) 저녁 8시, 연중 제 6주간화요일
▶5 월 15일(목) 낮12시, 연중 제 6주간목요일
▶5 월 16일(금) 저녁 8시, 연중 제 6주간금요일
▶5 월 17일(토) 낮12시, 연중 제 6주간토요일

◉젊은의 선택 주말(CHOICE)

일시 : 2008년 6월 6일(금) 저녁 7:00
~6월 8일(일) 저녁 6:00
안내 : 한맘성당 (416)447-4078
CONTACT : torontochoice@gmail.com

부속가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2008-19 2008. 5. 11.

성령 강림 대축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 례

해 설 김근효 **차주 해설** 이명희

화 답 송 주님,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 마음을 충만케
하시며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143)	진리의 성령
봉 헌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 체	(504)	우리와 함께 주여
퇴 장	(495)	성령이여 햇살같이

독 서

5 월 11일	노재현	노정은
5 월 18일	서원일	서소영
5 월 25일	김직현	김인자

봉 헌

5 월 11일	노원균	노숙희
5 월 18일	노재현	노정은
5 월 25일	서원일	서소영

복 사

5 월 11일	지홍	지헌
5 월 18일	수빈	경은
5 월 25일	원영	규환

2008 년 5월 4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615.00
본당의날 기념:	$ 55.00
교육관 :	$ 1000.00
Total :	$ 1670.00